

시론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어머니는 중국집에 가면 늘 짜장면이나 우동만 시켰다.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드려도 짜장하고 우동이 제일 맛있더라며 그것만 드셨다. 오늘 형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짜장면이 아기가 나왔다. 형님이 웃으며 “어머니, 혹시 중국집에서 아는 이름이 짜장과 우동이어서 그것만 시킨 것 아니예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덩덤하게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제일 싸더라.” 얼마든지 더 비싸고 맛있는 것을 주문하셔도 됐는데... 어머니 제사상에 살아생전 그리도 좋아하시던 ‘굴비 대가리’를 수북이 올렸다는 어느 아들이 아기가 내 이야기가 됐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 짜장과 우동만 좋아하시는 줄로 알았다.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러 가면 내 뒤통의 메뉴를 따로 고집하지 않는다. 나는 뭐든 좋으니 너희 먹고 싶은 것을 고루 시키라고 말한다. 식사 중에도 전체 흐름을 살피다가 남은 음식이 생기면 자연스레 내가 잔반을 말아 비워낸다. 누군가 식당에서 “아무거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정을 미루는 귀찮음일 수도 있지만, 상대의 취향을 먼저 채워주려는

어머니의 짜장면

은근한 배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이 익숙한 우리 세대는 다음 끼니를 확신하기 어렵던 시절을 지나왔기에 기회가 닿으면 배를 든든히 채워두곤 했다. 그래서 지금도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며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건강을 해친다며 정색을 하곤 한다. 평생 짜장과 우동만 시킨 어머니가 내게 안타까움으로 남듯, 내 아이들도 나를 안타까워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처음부터 알맞게 시키면 좋으련만, 여행지사도 도심 식당에서 만나는 젊은이 중에는 음식을 푸짐하게 시켜 많이 남긴 채 무심하게 일어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결핍의 시대를 건너온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 것이다. 한동안은 아내와 커피숍에 갈 때도 커피를 즐기지 않는다며 당신 것 한 모금만 나눠 마시라고 하곤 했다. 어느 순간 아내가 나와 커피숍 가기 싫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분위기가 망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1인 1음료가 원칙이 돼 억지로라도 한 잔을 시키지만, 여전히 나 혼자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강연자 대중교통으로 전국을 다니다가 차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도, 카페 대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주위를 걷는다. 나를 위해 공간과 여유를 사는 일이 어머니의 고급 중화요리만큼이나 아작은 낯설고 아깝게 느껴진다. 어머니의 짜장면에서 시작된 생각이 잠시 옆길로 섰다. 어머니 정신이 더 초초초통해

지고 기력도 좋아져서 우리 형제가 걱정할 정도로 점심을 많이 드셨다. 음식을 남기고 가면 새창 때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 젊은 날 피약별 아래서 쉽 없이 눈발 일을 하실 때, 돌아서면 쉬이 꺼지던 몸이 기억하는 그베고품이 다시 살아났다 보다. 인지가 또렷한 것 같은데 꿈을 현실로 믿는 것은 그대로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그렇게 아쉬워하시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시골집에 살아 계신다며 서운함을 내비치셨다. 미안함을 서운함으로 이겨내고 계시나 보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며 나중에 저승 가면 아버지 찾으실 거냐고 여쭙니 살아있다고 강변하신다. 설령 죽었더라도 저승에서 찾을 생각을 없다고 말씀하신다. 미안함을 떨치기 위해 되살린 서운함이 점점 더 커가나 보다.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또 오겠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혼잣말을 하신다. “아무래도 난 여기서 생을 마칠 것 같구나.” 평생 사시던 고향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바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계신 줄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떠나온 뒤, 고향 집은 몇 달 만에 폐허처럼 되고 말았다. 집을 품어 안고 살던 당신 자신이 곧 고향 집이었음을, 당신이 무너지던 날 고향 집도 함께 무너졌음을 어머니는 아직 알지 못하신다. 현실이라 굳게 믿고 계시는 그 꿈속에서, 어머니는 지금도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며 아웅다웅 함께 고향 집을 지키고 계신다 보다.

기고



조 영 인
출판인·조인애드컴 대표

지방 도시에서 오직 활자와 출판물을 붙들고 회사를 꾸려온 세월은 매 순간이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었다. 출판판으로는 버티기 힘든 척박한 토양 탓에 크고 작은 지역 축제 기획부터 옥외광고, 산업디자인, 공공 영상 제작까지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업의 지평을 넓히며 현장을 누볐다. 여성 기업인으로서 술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명함 맨 뒷자리에 언제나 ‘출판’ 두 글자를 고집스레 새겨 넣은 것은, 기록이 지닌 본원적인 힘과 책이라는 지적 자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문화 산업인의 시선으로 최근 광주에서 일어나는 공공 인프라 논의를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진다. 바로 남구 옛 보훈병원 부지(약 4천200평)를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는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유치전이다. 2022년 부산에 첫 지역 분관이 개관한 이후, 국가 최고 지식 정보기관의 지역 확장은 국토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유치가 던지는 질문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됐다. 영남권에 이어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 분관을 유치하는 것은 마땅히 환영할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공공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행정적 섹셈 속에서, 마땅히 미래 세대의 지적 보고가 들어서는 자리에 단기적인 상업 개발이나 매각 논리가 우선 거론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당장의 재정적 계산에 밀려 미래의 지식 영토를 잃어버린다면, 그 문화적 빈곤의 대가는 오롯이 후대의 몫으로 돌아온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외형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라는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라는 소프트웨어의 철학을 먼저 세우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의 출판과 기록 생태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평생의 지역 연구에 바친 원로 학자들의 귀중한 향토 서적과 희귀 자료들이 물 곳을 찾지 못해 먼지 쌓인 지하창고에 방치되거나 폐지 트럭에 실려 나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과 공공도서관조차 지역 기록물을 감당하지 못해 외면하는 척박한 풍토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역의 지적 유산을 품어낼 최소한의 공공 그릇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화상이다. 해외 도시들이 지식 인프라를 일궈낸 방식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 멕시코시티는 버려진 황폐한 철도부지를

아파트나 상가 대신 거대한 식물원과 결합한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으로 바꿨다. 눈앞의 개발 이익 대신 녹지와 책이 어우러진 ‘지식의 숲’을 선택한 이 결단은 도시의 품격을 단숨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네덜란드 틸뷔르흐의 ‘로켄할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낡은 공장을 허물지 않고 시민과 지역의 기록을 모으는 열린 공간으로 되살려 ‘세계 최고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책을 먼지 쌓인 유리관에 가두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드나들며 지역의 지혜를 나누는 거점으로 만든 것이다.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유치는 단순히 서울의 중앙 기관을 하나 흉내 내는 외형적 성과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 멕시코시티처럼 귀한 공공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지켜내고, 네덜란드처럼 사라져가는 지역의 향토 기록 유산과 출판·문화계의 숨결을 끌어안는 ‘광주만의 독창적인 지식 플랫폼’이 돼야 한다. 평생을 활자와 디자인으로 지역의 서사를 기록해 온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단기적인 개발 논리가 남긴 뻘뻘한 빌딩 숲 대신, 지혜를 길어 올릴 거대한 ‘지식의 숲’을 이 땅에 심는 결단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현장을 지켜온 문화기업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의 미래에 간곡히 바라는 모습이다.

독자투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농촌의 관심은 농·수·축·산림 조합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지자체 선거와 달리 협동조합 선거는 각 읍·면 또는 군 단위로 조합원 수가 한정돼 후보자들이 쉽게 선거법 위반의 유흥을 받을 수 있다. 경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품 살포를 저지르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수십만원의 금품을 받고 헐값에 매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억원의 돈을 쓰고 조합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선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합 재산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 조합원 스스로 올바르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 어찌 조합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명선거와 조합원의 올바른 권리행사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어떤 예비후보는 돈을 얼마 이상 쓰기로 했더라”, “누구는 돈도 없으면서 말만 앞세워 선거에 나온다더라”라는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다. 정말로 부끄러운 후진국형 선거 풍토다. 미리부터 금품을 받고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 내가 생산한 농·수·축·임산물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한다. 나와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공약을 가진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선심성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

비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 농·수·축·산림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자 조합원을 위한 판매 사업을 최우선으로 잘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조합원이 어떤 품목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한국에 집결해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자.

(박상근장흥경찰서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구례군 공설자연장지, 군민들 필수 복지 서비스다

1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공설자연장지의 안치 업무가 내부수당 갈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을 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구례군에 따르면 공설자연장지는 유골 8천500구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11년 개장한 이후, 2024년 6월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 2명이 안치 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에 유족들은 40년 기준 30만원의 사용료만 부담하면 별도의 안치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주말 근무 수당 문제로 그동안 안치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의 업무가 2024년 7월부터 중단됐다. 또 해당 업무가 구례 지역 장례식장 3곳으로 넘겨지면서 유족들은 안치 용역비 2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군민들은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왜 우리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지를 따져 묻는 이유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던 군민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야한다는 점이다. 구례군은 현행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조항에도 안치 비용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자연장의 기준과 장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유로 비용 부담을 정당화 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 사안이 군의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 말이다. 이에 구례군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던 군민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군민들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설자연장지는 군민들이 세금으로 운영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례시설인 만큼, 내부 갈등으로 서비스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된 말이다. 행정 신뢰는 주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은행나무만 흔들어 댈 것인가

해마다 가을이면 광주 도심 곳곳에는 떨어지는 은행 열매로 악취와 보행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떨어진 은행 열매를 치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은행 열매 제거·수거 작업 등에 동구 1억7천380만원 등 총 12억8천840만원을 편성했다. 악취의 주원인인 압나무 수는 동구 약 900주 등 총 1만700주로 파악됐다. 사업 내용과 집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압나무 수로 환산하면 한 그루당 평균 11만9천740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처럼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소모성 형세 지출을 벗어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한다. 악취뿐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구는 신규 식재는 수나무를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북구는 버스정류장 주변 은행나무 압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동·남·광산구는 아직 교체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은행나무 압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산비용이다. 압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려면 1주당 100만~300만원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소 비용만 적용해도 자치구별 전체 교체에 10억~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비 지원까지 감소하고 있어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막대한 비용이 꼬박꼬박 지출하는 방식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 우선관리구간부터 압나무를 수나무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반복되는 소모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을만 되면 도심 곳곳에 진동수 확기로 나무를 흔들고, 수거망을 설치하고, 떨어진 열매를 쓸어 담는 모습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다카시 광장

레드카드

하재원

내가 왜 붉은지 알겠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리는

녹슬지 않는 경고



구룡포 일본인 가족거리의 1900년대 모형 우체통

※〈시작노트〉 구룡포 일본인 가족거리에 붉은색 선명한 우체통 하나 골목에 서서 백 년 전 설은 그림자를 오늘날까지 배달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가 읽을 때만 미래가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디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 집 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 케 팅 본 부	650-2070	광 고 국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1	편 집 국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광 고 국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편 집 국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